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March 2014 Vol.90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로버트 와이즈 스토리 The Story of Robert Wise



배니싱 트레이스
Vanishing Traces, 2006

현실 같지 않은 풍경 네덜란드 출신의 사진작가 스칼렛 호프트 그라플랜드는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오지를 찾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아름다운 풍광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칼렛은 굳이 그 속에 인위적인 무언가를 개입시켜 연출한 뒤, 셔터를 눌렀다. 이는 곧 자연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거나 흔적을 남긴 인간들의 역사를 말한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이내 사라지고 말 것들에 대한 기록인 셈이다. <언라이클리 랜드스케이프>전은 4월 19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린다.

Unlikely Landscape

Dutch photographer Scarlett Hooft Graafland has visited remote locations around the world over the past decade. In her travels, however, she wasn't interested in capturing landscapes that have been seen before. Instead, she created and recorded artificial scenes. Her photos tell us that people leave their marks on nature, which will either one day return to nature or disappear soon. Her exhibition, *Unlikely Landscape*, features 41 photographs at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until April 19.

CHOICE



Gansong Art and Culture 간송문화전

간송미술관의 국보급 유물이 3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내 디자인박물관에서 전시된다.

Valued items from Gansong Art and Culture Museum will be exhibited at Dongdaemun Design Plaza's Design Museum from March 21 to June 15.



Bailey's Stardust 베일리스 스타더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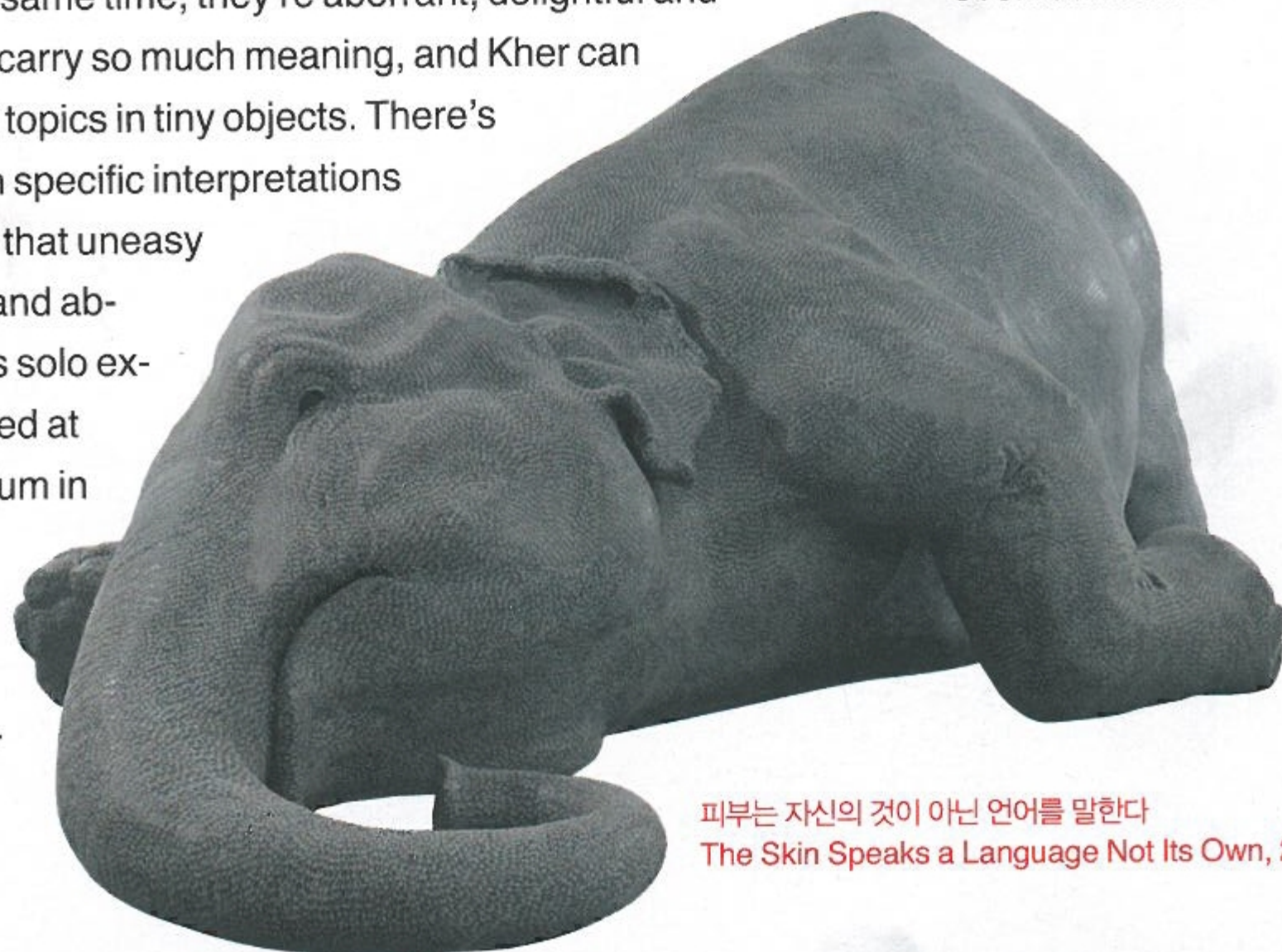
세계 유명인의 인물 사진을 찍은 데이비드 베일리의 전시가 6월 1일까지 런던 내 셔널포트레이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Famed celebrity photographer David Bailey will hold an exhibition at the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until June 1.

바티 커: 미스디미너스 인도계 영국 작가 바티 커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건 인도 여성들이 이마에 장식용으로 붙이는 '빈디'였다. 작은 빈디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붙이며 커다란 형상을 만드는 작업은 작가로서 또 여자로서 그녀의 정체성을 말한다. 바티 커의 작품 세계에 있어 '정체성'은 늘 중요한 화두다.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 개방도 정치적 계급, 종교 등에 의해 고정되거나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연작 중 여자와 동물을 섞은 혼성체 조각들은 바로 여기에 의문을 던진다. 절단되거나 의도적으로 변형된 신체, 괴이한 동물들의 등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도발은 기괴하고 불편하지만, 일탈적이고 유쾌하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하다. 작은 '빈디'가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처럼 바티 커의 작품에는 광범위한 주제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구체적인 해석을 하거나 의미를 규정지를 필요 없이 그 미묘한 아름다움과 기이한 유머, 추상적인 저항을 보고 느끼면 된다. 이번 전시는 상하이 록번드아트뮤지엄에서 3월 30일까지 열린다.

BHARTI KHER: MISDE-MEANORS

British-Indian artist, Bharti Kher, has built her reputation with bindis, a decoration worn on the foreheads of Indian women. Her art uses bindis, pieced together, becoming part of her identity as an artist and a woman. Identity is an important part of Kher's career. Social customs and cultural freedom may apply differently to people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or religious standings. Kher raises questions about this fact with her work conjoining women with animals. Severed or distorted bodies and animals serve the same purpose. Her provocations that turn the order of nature upside down may seem bizarre, but at the same time, they're aberrant, delightful and even beautiful. A small piece of bindi can carry so much meaning, and Kher can express a wide range of topics in tiny objects. There's no need to come up with specific interpretations or definitions; just enjoy that uneasy beauty, strange humor and abstract resistance. Kher's solo exhibition will be showcased at the Rockbund Art Museum in Shanghai until March 30, and feature her paintings, sculptures, photographs and installations.

by 김민정 Kim Min-jung



피부는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를 말한다
The Skin Speaks a Language Not Its Own, 2006

© Scarlett Hooft Graafland, Bharti Kher, David Bailey